‘김밥 할머니’는 왜 서울대에만 기부할까? 다른 기부처를 모르기 때문이죠

광주문화재단, 후원자 개발 전략-휴먼트리 이선희 대표 강연

정보 없는 기부는 한계
예술 행사 참여시켜
문화 기부 가치 알리고
모금자 역할 유도해야

‘김밥 할머니’는 왜 서울대학교에만 장학금을 기증할까? 또한 왜 한국 전체 기부금액 중 0.5%만이 문화기부금일까?

지난 20일 광주문화재단 빛고을시민문화관 다목적실에서 열린 공개 강좌에서 모금 전문 회사인 (주)휴먼트리 이선희 대표는 ‘문화예술기관의 후원자 개발을 위한 성공전략’ 을 주제로 한 강연을 통해 명쾌한 답을 내놨다. 김밥 할머니는 서울대학교 이외의 기부처를 모르기 때문이다.

이선희 대표는 기부자와 기부를 받을 대상을 연결하고, 다양한 모금 방식을 개발하고자 2009년에 창설된 모금전문회사 휴먼트리를 운영하며 서울시복지재단 등에서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다. 또 (재)희망제작소의 ‘모금전문가학교’ 등을 운영하고 있는 모금 전문가다.

광주문화재단은 연간 16억원, 장기적으로는 2023년까지 500억원의 기금 확보를 목표로 다양한 기금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며 이를 위해 이날 강연을 열었다.

이 대표는 국내에서도 다양한 기부 활동이 전개되면서 ‘필란트로피’(Philanthropy)가 확산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필란트로피는 박애주의를 가리키는 말로 인류가 직면한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시간·재능·재원을 기부하고 이 같은 문화를 확산하는 정신이다. 기부와 봉사, 참여, 모금 등을 포괄하는 것으로 자선(Charity)보다 더 폭넓은 개념으로 사용된다.

필란트로피의 확산은 충분히 기부를 할 만한 사람이 늘고 있다는 뜻이다.

이 대표는 세계적인 소프라노 조수미씨가 동물보호교육센터 설립을 위해 수 억원을 기부한 일화를 예로 들었다. 조수미씨가 동물보호에 대한 문제의식을 인식했기 때문에 선뜻 기금을 쾌척했다는 것이다.

기부자에게 충분한 정보를 주지 못한다면 기존의 기부 방식으로만 기부를 할 수밖에는 없다. 이 때문에 문화계 관련 기부금이 크게 늘지 못하고 있으며, 문화 단체의 기부 마인드와 계획에 변화를 줘야 한다.

이 대표는 기부의 단계를 크게 3가지로 분류했다. 단순히 돈만을 모으는 행위는 하위 단계다. 또한 돈을 모으면서 사람을 모으는 것은 중위 단계다. 가장 이상적인 형태는 돈과 사람을 모은 데 그치지 않고, 그 사람이 적극적인 모금가가 돼 또 다른 기부금을 모아올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 이 대표는 잠재기부자를 발굴하고, 이들을 문화 행사에 적극적으로 참여시켜 문화 기부의 필요성을 스스로 느끼게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를 통해 일시기부와 정기기부를 하게 되고, 또 고액기부나 유산기부로 이어질 수 있다.

기부자들이 스스로 필요성을 느껴 새로운 기부자를 발굴하는 단계에 이르러야 진정한 의미의 기부 문화가 자리잡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이 대표는 “기부금이 얼마나 의미 있게 쓰이고 있는지를 충분히 기부자에게 설명하는 것도 중요하다”면서 “자신의 돈이 다른 단체와 분야에 비해 훨씬 의미 있게 사용되고 있다는 점을 기부자가 충분히 느껴야 지속적인 기부가 가능하고, 더욱 많은 기부자를 모을 수 있다”고 당부했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부부 성악가의 슈만 가곡

오진현·김대수씨 내일 빛고을아트스페이스

작곡가 슈만과 클라라의 사랑은 유명하다. 강물에 몸을 던져 자살을 시도할 정도로 심약했던 슈만을 마지막까지 지켰던 이가 클라라였고, 슈만 역시 피아니스트였던 클라라를 음악적으로 인정했다.

부부 성악가가 부르는 슈만의 가곡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됐다. 광주문화재단이 주최하는 ‘목요상설 무대’는 소프라노 오진현씨와 바리톤 김대수씨를 초청, 공연을 갖는다. 23일 오후 7시30분 빛고을아트스페이스 2층 소공연장.

이날 공연에서는 슈만 연가곡 ‘여인의 사랑과 생애 Op.42 ’와 ‘시인의 사랑 Op. 48’을 들려준다. 두 작품은 1840년 슈만이 부인 클라라와 사랑에 빠졌을 당시 작곡된 곡으로 당시 성·계급·시대와 관계없이 연인들이 품고 있는 희망과 두려움을 담고 있다.

오 씨는 연세대, 독일 뒤셀도르프 국립음대 오페라과를 졸업하고, 함부르크 국립음대 최고연주자과정을 최고점수로 졸업했다. 현재 전남대에서 후학을 양성하고 있으며 한국슈베르트협회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김 씨는 연대 성악과와 독일 에쎈 국립음대 리트, 오페라과를 졸업하고, 함부르크시립음대 최고연주자과정을 최고점수로 졸업했다. 광주대에 출강하며 현대성악연구회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피아노 반주는 김예지·박은정씨. 전석 1만원. 문의 062-670-7945.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주말엔 프리마켓으로

유·스퀘어문화관 25일 예술시장
전통문화관 26일 ‘운림동 모태보태’

시민들이 셀러로 참여해 다양한 물건들을 사고파는 프리마켓이 오는 25일과 26일 잇달아 열린다.

유·스퀘어문화관이 주최하는 아름다운예술시장〈사진〉은 오는 25일 유·스퀘어 2층 야외광장 유·테라스에서 개최된다.

아름다운 예술시장은 광주·전남에서 활동하는 예술가들이 자기 작품을 알리고, 지역민들과 소통할 수 있도록 지난 3월부터 유·스퀘어가 매달 마지막 토요일에 열고 있는 프리마켓이다.

이번 프리마켓에서는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캘리그라피로 엽서를 만드는 강좌와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 등을 준비했다. 아름다운 예술시장은 누구나 무료로 참여가 가능하다. 참가자들은 지역 예술 발전을 위해 자율적으로 수익의 일부를 광주문화재단에 기부하면 된다. 문의 062-360-8431.

광주문화재단 전통문화관과 ㈜컬쳐네트워크는 오는 26일 오후 12시부터 5시까지 전통문화관 너덜마당과 입석당 등에서 도시형 마켓 ‘운림동 모태보태’를 개최한다.

‘모태보태마켓’은 지역 주민들의 손맛과 솜씨가 담긴 먹을거리, 살림거리들을 한데 모은 도시형 공동체 마켓이다. 시민들이 셀러로 참여하는 ‘모태보태 마켓’, ‘돌머리 굿판’과 함께하는 전통공연, 민화 시계만들기 워크숍 등 다양한 체험프로그램이 진행된다. 또 인근 성촌마을 주민들이 텃밭에서 키운 채소와 의재미술관이 제작한 찻잔·춘설차·춘설빵 등이 함께 판매될 예정이다.

문의 070-8285-3171(㈜컬쳐네트워크), 062-232-1501(전통문화관).

/김경인기자 kki@kwangju.co.kr

러시아 인형 만들고 화분 받고… 전시회까지

도서관·출판계 ‘책의 날’ 행사 다채

출판계 불황과 독서 인구 감소에도 불구하고 책의 중요성은 날로 커지고 있다. 독서가 마음의 양식이라면, 그 양식의 원재료는 책이기 때문이다.

23일 ‘세계 책의 날’을 맞아 지역 공공도서관과 출판계가 다채로운 행사를 펼친다. 책을 매개로 이뤄지는 이날 행사는 독서의 중요성과 책 읽는 문화 확산에 초점을 둔다.

먼저 광주사직도서관은 1층 어린이실(오전 10시 30분~11시 30분)에서 ‘책으로 여행하는 친구나라’ 이벤트를 실시한다. 아이와 어린이 함께 하는 이날 행사에는 ‘필리핀 전통옷과 민속물건 체험하기’ ‘러시아 전통인형 마트료시카 만들기’ 등을 진행한다. 062-613-7783.

광주무등도서관은 책 만들기와 미니화분 배포 행사를 갖는다. ‘도서관 나들이북 만들기’는 어린이실 내 어울림방(오후 4시~5시)에서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하며, 종합자료실(오전 9시)에서는 일반시민 250명을 대상으로 책의 날 유래가 적힌 미니화분을 나눠준다. 062-613-7720.

광주산수도서관은 활판인쇄 과정을 소개하는 전시회를 연다. 1층 로비에서 열리는 ‘활판 인쇄 과정 전시회’(오전 9시~오후 6시)는 한권의 책이 탄생하기까지의 과정을 보여준다. 062-613-7812.

인터넷 서점 예스24는 책갈피 증정 등 이색적인 이벤트를 마련한다. 22일과 23일 양일간 도서 1만원 이상 구매 고객을 대상으로 매일 선착순 1000명에게 카세트 북마크를 증정한다. 또한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로 퀴즈 이벤트를 열어 4만원 상당의 추천박스도서를 증정한다.

한편 책의 날은 1955년 국제연합총회에서 유네스코가 세계인의 독서 증진을 위해 정한 날로 정식 명칭은 ‘세계 책과 저작권의 날’이다. 4월 23일로 정한 것은 에스파냐의 카달루냐 지방에서 책을 읽는 사람에게 꽃을 선물하던 ‘세인트 조지’ 축일과 1616년 세르반테스와 셰익스피어가 동시에 사망한 날에서 유래했다.

/박성천기자skypark@kwangju.co.kr

상무하늘땅공인중개사
치평동 정현철
상가 · 건물
- 화정동 1층상가 225㎡ 11.5억(보1.3억 월600만)
- 쌍촌동 5층건물 매 16억(보 1.8억 월750만)
- 신창동 4층건물 매 27억(보 4.1억 월 1,260만)
- 수완동 4층건물 매 24억(보2.7억 월 1,140만)
- 산정동(흑석사거리) 2층건물 매24억(보2억 월1,000만)
- 월계동(첨단) 3층건물 매25억(보2억 월 1,000만)
- 월계동(첨단) 상가건물 매70억(보14억 월3,000만)
- 두암동 상가건물 매 42억(보7억 월2,300만)
- 장덕동 8층구분상가 매매 826㎡ 8억(조정가,분할매매가)
- 장덕동 8층 상가 826㎡ 임대 보 1억/ 월 450만 (패밀리레스토랑적합)
- 치평동 상가 4층 임대 310㎡ 보5천만/월300만 (학원, 사무실 적합)
- 풍암동 4층 상가주택 매 7.2억
- 쌍촌동 4층 상가주택 매 6.9억
대지· 전용가능 녹지· 전/답
- 충장로4가 중심상업지역 대지 2.270㎡ 매 41억 (오피스텔부지적합)
- 서구 마륵동 대지 701㎡ 매10억
- 서구 세하동 생산녹지 답 2,400㎡ 매 5.7억
- 북구 용두동 생산녹지 답 2,600㎡ 7.9억
- 장성군 진원면 선적리 답 2000㎡ 매 3.6억(전원주택부지)
- 담양군 봉산면 기곡리 전 2,962㎡ 매 1.8억(주말농장적합)
- 무안군 청계면 전원주택부지 882㎡ 매 1.9억
- 화순 청풍면 폐교부지 9,500㎡ 매 4.3억 (요양병원, 전원주택부지, 체험학습장 적합)
광주,전남권 부동산 매도 매수 상담환영
☎ 010-5536-0382

해남바다 접한 펜션주택지
▶주소 : 해남군 송지면 송호리 502-1
▶면적 : 12,102평방미터 (500평분할가능)
▶매가 : 평당 15만원
▶지역 : 계획관리지역
바다와 갯벌 체험하고 백사장과 송림숲이 좋은 환상땅
010-5267-7225

해남 귀농 최고의 펜션
▶연소득 : 5천만원 (장부확인가능)
▶장소 : 해남읍서 대흥사 가는길목
▶면적 : 1838평방미터 (대+전)
▶건평 : 주택4동+캠핑카
▶매가 : 4억 5천 (절충가능)
010-5267-7225

제주도 환상의 땅
♧ 투자 최고의 돈버는 땅 ♧
▶주소 : 제주시 구좌읍 한동리
▶면적 : 3071평방미터 (계획관리)
▶매가 : 9천만원
▶주소 : 제주시 애월읍 광령리
▶면적 : 4509평방미터
▶매가 : 6억5천만원
010-4870-4800
제주땅 삽니다

혈당조절 때문에 걱정되시죠?
식후 혈당 상승억제에 도움!!
희소식
유한메디카 글리코엔(N) 골드
식후혈당 상승억제에 도움을 줄 수 있음
고시형 건강기능 식품입니다
당의 흡수를 억제시켜 Glocose를 조절합니다
식후 2캡슐씩 하루 2번으로 혈당조절 OK!!
식후 혈당 상승 억제에 도움을 줄수 있는
01 식후혈당상승억제에 도움을 주어 혈당조절이 잘 되지않을때 혈당조절을 개선시켜줍니다.
02 기능성과 안전성을 인정받은 원료로 제조한 고시형 건강기능식품 입니다.
03 (주)유한메디카에서 “혈당조절” 에 어려움을 겪고 계신분들에게 도움을 드리기 위해 정성된 마음으로 완성된 건강기능식품 입니다.
※ 전화주시면 책, 자료, 무료로 우송해 드립니다 ※
DaumNAVER 백세생활건강 ▼ 검색하세요
문의 H.P 010-3598-7080/1899-3975

슬픈날 마음을 나누며 조의,부의,근조
결혼, 고희, 전시회, 개업, 준공식 축하화환
전국꽃배달서비스 전국농장직영
화환 ▶ ~~100,000~~ 70,000
전국 ▶ 80,000
전국화환 꽃·도매 362-1122, 010-5532-7799
팩스 942-6633 농 협(김희진)175359-56-13018